

생수도 불안한 세상

수돗물을 믿지 못해 돈을 주고 사서 마시는 생수(먹는 샘물)는 과연 문제가 없을가.

환경부는 9일 그동안 인체의 유해 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던 대전지역 생수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생수에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미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분석방법 등 신뢰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으며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22개 생수업체 가운데 두개 제품에서 각각 22.68과 25.26PPB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이는 미국 권고치인 20PPB보다 조금 웃도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먹는 물 가운데 우라늄의 양과 인체 유해여부의 관계가 아직 구명되지 않은데다 현재 20PPB로 되어있는 권고치마저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인체에 커다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생수의 조사분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린 시기가 분석방법, 환경부의 측정 대 처방안 등 신뢰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암 발생·기형아 출산 등 위험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샘물업체는 60여개, 수입업체도 30여개사

며 무허가업체는 60여개에 넘는다. 이들 1백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판매한 먹는 샘물은 97년 한 해 동안 89만 3천에 달했다. 현재 먹는 샘물 소비자의 추정치는 전체 인구의 5% 선. 방사능 생수도 문제지만 가장 생수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세균 생수도 문제다.

같은 '먹는 샘물'인 약수도 주의해서 마셔야 한다.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 1천7백5개소 가운데 부적합한 곳이 1백10개소(6.6%)로 나타났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뒷집 행정'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사후 미분해 보다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책을 마련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29일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한 연구보고서를 입수, 대전지역 일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우라늄)이 기준치의 50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95년 사이 대전지역 일대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우라늄의 경우 조사 대상 39곳 가운데 18곳에서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청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수에 녹아있는 방사성 물질을 마실 경우 폐암이나 골수암 등 암이 발생되고, 태아 세포에서 DNA가 파괴될 경우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먹는 물에서 이런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48시간 이내에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생수(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고의 눈

물은 네가지의 위대한 존재 즉, 땅 물 불 바람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을 연기에서의 인과관계의 연쇄에 자주 비유하셨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도 오염되면 독약과 같다. "이 물고의 눈에는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이 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 있다. 원하면 마셔라. 네가 마시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와 맛 때문에 입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면 그로 인해 죽음이거나 죽을

"오염된 물은 독약"

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다." (아함경) 전제성 한국배달리성전협회 회장은 "천연수에는 적어도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있으며, 그 가운데는 땅의 성분인 각종 미네랄이나 광물질을 위해서 바람의 성분인 산소나 탄산가스, 생명의 성분인 유기물질, 불의 성분인 적절한 온도가 안정상태를 이루고 있다"면서 "방사능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물은 인체에 이로운 천연수를 독약으로 전환 시키므로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마음 읽는 '감성컴퓨터' 나온다

MIT공대 실험작동...수년내 대량 생산

"인공지능 가능해도 '의식'은 불가능"

인간의 마음을 읽는 감성 컴퓨터가 개발됐다.

美 MIT공대의 미디어 실험실은 인간의 행동을 모니터로 관찰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 실험작동을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현재 실험 중인 감성 컴퓨터가 수년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되면 학생의 반응여부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까지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지속적인 진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지능)'과 같은 기능을 가질 정도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의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발자 로살린드 피카드 박사 팀은 사용자의 몸에 바이오리듬 센서를 부착하고 극소형 카메라를 이용,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등을 읽어 개인의 감정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성 컴퓨터가 사용자의 현재 감정이 마음변화를 읽어 적절히 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 방위산업체에서 10여년 이상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을 맡았던 김사철 박사(前 주일대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해 가면 '의식'이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사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초월적 인) 의식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인공지능과 물리학의 양자론에서 문제되는 '의식'의 문제는 이미 부처님이 2500년전에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피카드 박사는 감성 컴퓨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 맞는 가정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김재경 기자

세계 인구는 내년 60억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 인구가금이 9일 밝혔다. 인구가금은 지금의 총인구가 60억명선을 돌파하는 정확한 날짜를 현재 확인할 수는 없으나 내년 중반으로 예상된다면서 6월16일을 '60억명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은 현 세계인구를 59억명으로 집계하고, 신생아는 초당 3

내년 6월16일 세계인구 60억명

명, 하루 약 22만2천명, 연간 8천 1백만명 꼴로 태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은 또 출산율과 가족 구성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00년 세계 인구는 10억명이었으며 130년 뒤인 1930년에 20억명, 그리고 1960년에 30억명이 됐다. 그러나 60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29억명이나 급증, 10년마다 거의 10억명이 늘어난 셈이다. 현 인구 59억명 가운데 11억명은 15~24세이며 60세 이상은 약 5억명이다.

김재경 기자

'사랑의 집짓기' 행사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 운동)은 기금 모금을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4일간의 자진대행진(20~23일)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해비타트의 밤' 개최(25일), 태백·진주 집 짓기 사업 등을 전개한다(참가신청 02-261-3701).

80대 할머니 장학재단 설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소원인 이던 새댁이 88세 할머니가 되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꿈을 실현해 지역사회에 칭송을 받고 있다. 지난 97년 5천만원으로 유진원 장학회를 설립, 매년 1백여명의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온 박할머

니는 최근 집 근처 땅에 소망도로가 나면서 2억여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1억원을 장학회에 추가로 내놓았다.

청소년 77% 음란정보 경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77%가 음란정보 및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중3~고3 1,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77.1%(710명)가 음란정보나 포르노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47.0%는 이로 인해 성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폭력' 시비 건설사 수사

철거현장에서 철거민에 대한 폭력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철거

업체인 다원건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다원건설이 경비용역업 허가없이 철거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경비업을 해왔다며 대표이사 이금영(27)씨 등 임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식품제인점 불량식품 적발

제인점 형태의 음식점에 급하고 있는 일부제인점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식품재료 공급업체인 제인점 본사 1백28곳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규를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가 원구성도 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기능이 멈춰버려 '식물국회'란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국회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묻는 시민들의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되는가 하면 연일 국회앞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백60여 개 법안이 계속,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폐업국회'로 인해 하루 평균 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민생현안 처리는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세비나 축내는 국회의원들부터 '퇴출'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헌절 50주년을 맞아 더크다. 경전과 조시아록을 통해 부지런히 책임을 디해야 하는 이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이카나라 촌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로 걸음을 나가다가 밭갈이 하는 바리문을 만났다. 그 때 바리문이 부처님께 말했다. "고타마여,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 것으로 먹고 사요.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나도 밭 갈고 종자를 뿌려 그 것으로 살아야 하니라."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밭 갈고 씨앗 뿌리는 것을 보지 못했소이다."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밭은 마음은 씨앗이요, 애써 수행하는 것은 쏠아지는 비며, 지혜는 쟁기 끄는 명에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갈채이니 올바른 생각을 스스로 지켜 훌륭한 소울이 되노라. 몸과 입과 마음 잘 지키기를 극심 하고 지키듯 하며, 진실을 타고 기꺼이 게으르지 않아 정진으로 황폐한 밭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을 밭을 갈고 있으니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 근심 없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백성에게서 두루 영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공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백성복>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백성에게서 두루 영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공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백성복>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세상품 "모스키토 호크"

모기의 천적인 잡자리의 날개 소리를 모방해 모기를 쫓는 '모스키토 호크'

전자장치로 잡자리의 날개짓 소리를 발생시켜 모기를 도망치게 하는 이 제품은 비범한 크기로 허리에 차고 다니면 12m 이내에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 9V 건전지로 5천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는 물론 캠핑이나 낚시할 때 특히 유용하다. K2 상사. 가격은 3만8천원. (02)264-6683

영구불타는 대우대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 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 저렴한 학비**
·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 교수진**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 "교재+테이프" 집에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범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읽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복사·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사이즈 39×39cm
색상 빨강, 검정
가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정보결혼연구원」의 이영숙원장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항상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 이영숙(본명)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현역,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윤달수의

어디서 구입할까?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상인 몇 년을 불교장교사로 일해온 연합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어떻게 구입할까?

직접 확인(만져보고, 태워보고) 하시고 비교하신 후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서울 연희동 02-732-9618
충청남도 천안시 0361-241-5848
충주 연희동 0431-65-6626
대구 지평동 053-654-0055
부산 남포동 051-554-0300
광주 불교신문회 062-226-5161
전주 불교신문회 0593-33-5115